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N: 신조선가치수 139p, 중고선가치수 152p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치수는 139p(+0p, WoW), 중고선가치수는 152p(+9p, WoW)를 기록함. 지난주 HMM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 13,000TEU급 컨테이너선 각 6척씩 발주함. 현대삼호중공업은 86,000DWT급 VLGC 2척을 수주함. 현대미포조선은 ROPAX 2척을 수주함. (Clarksons)

Panamax-sized iron ore cargoes from Brazil fixed on cheaper capesize bulkers

유럽 철강 업계는 Panamax 벌크선 대신 비용측면에서 유리한 Capesize 벌크선을 예약하고 있음. Baltic Exchange Data에 따르면, Panamax의 가격 프리미엄은 12년만에 처음으로 보도됨. (Tradewinds)

Shipping set to get exemption from global corporate tax

OECD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 해운업은 예외로 두기로 합의되었다고 보도됨. (Tradewinds)

Opec+ to resume oil policy talks on Monday after UAE roadblock

UAE 제의 8월부터 추가적으로 증산하되 기존 4월로 만료되는 감산을 내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함. UAE는 추가 증산에는 동의하나, 감산 연장에 대해 자국의 기본 생산량을 수정해 증산할 여지가 있도록 하는 조건을 요구함. 금일(5일) 회의 재개 예정이라고 보도됨. (Upstream)

Petrobras postpones bid date for ninth floater on huge Brazil pre-salt field

Petrobras는 9번째 Buzios 프로젝트 FPSO EPC계약 입찰 일자를 11월 16일로 연기함. 연기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보도됨. (Upstream)

US rig count jumps to highest level in more than a year

유가가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미국 석유가스업계는 굴착장치를 475대로 확대함. 전년대비 +212대 추가된 수준으로 보도됨. (Upstream)